■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97〉

풍형예대(豐亨豫大)풍요로우니 마음껏 써도 된다?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나라의 힘도 커질까. 풍요로운 미래도 보장될까. 생산과 교역이 늘고 기업이 이익을 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커진 경제를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사람과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의 성과를 다음 시대의 능력으로 바꾸어 놓아야 풍요도 이어 갈 수 있다. 돈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초과세수 전망은 이 질문을 우리 앞에 놓는다. 재정당국이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추경예산보다 63조 2천억 원 많은 478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 등이 반영된 연간 전망이며, 이미 걷힌 세금의 최종 집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쓰고, 미래를 위해 얼마를 남겨 둘지 판단하는 일이다. 현재의 생활을 개선하면서 앞으로 닥칠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북송(北宋)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풍요로운 때에 놓치기 쉬운 이 문제 때문이다.

북송은 요(遼)와 전연의 맹(淵之盟)을 맺어 양국 사이의 대규모 전쟁 부담을 줄였다. 국경이 안정되는 가운데 농업과 상업이 성장하고 도시와 문화도 발달하였다. 축적된 부를 어디에 쓰고 어떤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했다.

전연의 맹으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휘종(徽宗) 때, 재상 채경(蔡京)은 풍형예대(豐亨豫大)를 내세웠다. 『주역(周易)』의 풍괘(豐卦)와 예괘(豫卦)의 뜻을 끌어온 표현으로, 당시가 풍성하고 형통하며 안락하고 성대한 태평의 상태를 뜻한다.

『주역』은 풍요를 말하면서 그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경계도 함께 제시한다. 풍괘의 「단전(彖傳)」은 "해가 중천에 이르면 기울고, 달이 가득 차면 가려진다〔日中則昃, 月盈則食〕"고 한다. 오늘의 문제에 비추어 읽으면, 여유가 있을 때 다음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경계로 받아들일 수 있다.

채경은 이러한 경계를 뒤로하고 풍요롭고 태평한 시대라는 뜻을 앞세워 황제 휘종의 사치를 정당화하였다. 『송사(宋史)』 「채경전」은 오랜 평화로 창고가 가득하자 그가 풍형예대를 내세우며 재물과 관직을 함부로 사용했다고 비판한다.

휘종이 옥으로 만든 술잔을 내놓으며 지나친 사치라는 말을 들을까 걱정하자, 채경은 황제가 천하의 봉양을 누리는 데 그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재물이 많다는 사실을 더 누려도 된다는 허락으로 바꾼 것이다. 궁궐과 정원을 꾸미는 사업은 부담을 키웠다. 기이한 돌과 나무를 운반하는 화석강(花石綱)에는 재물뿐 아니라 백성의 노동과 수송 수단도 들어갔다. 황실의 화려함을 위해 풍요를 만들어 내는 백성의 생업을 흔들었다.

휘종과 채경도 재정과 교육 등의 제도를 바꾸었고, 휘종 조정은 옛 영토의 회복을 추진했다. 다만 사업을 벌이는 것과 나라의 장기적인 안정을 준비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고칠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채경의 정치 운영은 그 통로를 좁혔다. 휘종의 승인 아래 원우당적(元祐黨籍)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간당(姦黨)으로 규정하고, 그 자손의 관직 진출까지 제한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배제하면 그 사람의 경험과 능력도 쓸 수 없게 된다. 국가가 활용해야 할 인재와 의견의 폭을 권력자가 스스로 줄인 셈이었다.

그 사이 여진(女眞) 세력을 결집한 아골타(阿骨打)가 1115년 금(金)을 세웠다. 금은 1125년 요의 천조제(天祚帝)를 포로로 잡았고, 1127년에는 정강의 변(靖康之變)으로 북송을 무너뜨렸다. 건국한 지 십여 년 만에 기존의 두 강국을 무너뜨린 것이다. 송 왕조는 남송으로 이어졌지만 중원의 지배를 잃었고, 휘종과 흠종(欽宗)은 포로가 되었다.

이 급변을 사치나 당쟁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금의 군사적 성장에 요의 내부 분열, 송이 금과 연합하여 요를 공격한 선택, 전쟁 중 지휘와 의사결정의 실패가 겹쳤다. 새 세력의 성장과 기존 국가의 판단 실패는 오랜 질서도 빠르게 바꾸었다. 창고에 쌓인 재물은 그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까지 보장하지 않았다.

오늘의 기술·산업 경쟁은 당시의 정복 전쟁과 다르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더 빠르게 발전시키면 경쟁력은 약해질 수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경쟁에서도 앞설 것이라는 증명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일자리와 산업 구조, 국제 경쟁의 조건을 바꾸고 있다. 그 속도와 파급을 정확히 내다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준비할 미래는 오늘의 규모만 커진 세상이 아니다. 일하는 방식과 필요한 지식,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누구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질지는 지금 다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최대한 폭넓게 모아야 한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배제하면 아직 알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까지 줄인다. 지금의 권력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능력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다. 다양한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사람을 모으는 데서 끝나서도 안 된다. 연구 성과와 현장의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고, 다른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은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제도를 고쳐야 한다. 지도자의 안목과 정보력도 이런 통로 위에서 길러진다. 인재의 능력이 국정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일까지가 미래 대비다.

늘어난 세수는 그 준비를 할 기회다. 기초연구와 교육, 미래 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새로운 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 바뀐 기술을 배울 기회도 넓혀야 한다. 성장의 성과를 다른 기업과 지역으로 연결하고,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재취업을 돕는 것도 사회의 적응력을 키우는 일이다.

현 정부의 재정 운영도 이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어느 사업에 왜 재원을 배분하며 누가 집행하고 어떻게 성과를 점검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인재를 쓰고 연구를 지원할 때 정치적 친소보다 전문성과 공공의 필요를 앞세우는가. 정부 밖의 지식과 경험까지 활용하고, 비판을 받아들여 정책을 고칠 수 있는가. 돈을 배정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어떤 능력이 쌓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호황이 꺾였을 때 쓸 재정 여력도 남겨 두어야 한다.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계속될 수입으로 여기고 지출을 늘리면, 세수가 줄었을 때 필요한 투자와 민생 지원이 제약될 수 있다. 현재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지출은 필요하다. 미래를 준비할 여력까지 당장의 향유에 소진하는 태도를 경계하자는 것이다.

채경은 쌓인 재물을 황제가 더 누려도 된다는 이유로 삼았고, 정치적 배제는 국가가 쓸 인재의 폭을 좁혔다. 오늘의 정부는 늘어난 세수로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능력도 키워야 한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고, 연구와 교육의 기반을 넓히며,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을 제도를 갖추고 있는가. 호황이 꺾여도 필요한 투자와 민생 지원을 이어 갈 재정 여력을 남겨 두고 있는가. 현 정부의 재정 운영은 지금 얼마를 쓰느냐뿐 아니라, 그 지출로 미래를 준비할 어떤 능력을 쌓느냐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고사성어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독안룡(獨眼龍)

홀로 독, 눈 안. 용 룡.

애꾸눈의 용이란 뜻으로 한쪽 눈을 가지고도 용맹한 사람을 뜻하는 말

유래: 중국 당나라 때 황소의 난을 진압한 이극룡은 돌궐족 출신에다 애꾸눈이라는 약점을 딛고 출중한 능력을 발휘하여 당대 최고의 장수라는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독안룡'이라고 불렀다. 후에 이극룡의 아들 이존욱은 후량을 멸망시키고 후당을 세워 초대 황제인 장종(莊宗)이 되었다.

독야청청(獨也靑靑)

홀로 독, 어조사 야. 푸를 청.

직역하면 홀로 푸르다. 홀로 푸르고 변하지 않는 상태. 상징적 표현으로는 고결함, 절개, 흔들림 없는 자세를 뜻한다. 이 고사성어는 외부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 다수가 흔들릴 때에도 중심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유래: 조선 세조 때 사육신 중 한 명인 성삼문이 형장으로 끌려가며 남긴 시조에 등장.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꼬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 제 독야청청 하리라.

남들이 모두 타협하거나 변할 때 홀로 지조와 곧음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외부의 외압이나 부당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는 태도를 나타냄

돈견(豚犬)

돼지 돈, 개 견.

돈견은 돼지와 개를 합친 말로 비천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나 미련하고 못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식을 낮추어 부를 때 겸손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삼국지에서 조조가 형주의 유표의 아들들을 손견의 아들(손책, 손권)과 비교하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호부견자(虎父犬子)가 있으며 이는 뛰어난 부모 밑에서 못난 자식이 태어난 경우를 가리킵니다.

돈제일주(豚蹄一酒)

돼지 돈, 발굽 제. 한 일. 술 주.

돼지 발굽 하나와 술 한잔이라는 뜻으로 작은 물건으로 많은 성과를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유래: 사마천의 〈사기〉 골계열전에 등장하는 순우곤의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제나라의 위왕이 초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조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며 보낸 예물이 너무 적자 순우곤이 돼지 발굽 하나와 술 한잔으로 풍작을 비는 사람에 비유하며 왕의 어리석음을 꼬집은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제나라 위왕은 그 말을 듣고 황금 천 일과 백옥 열 쌍, 거마 백 대를 예물로 늘려주었고 조나라는 정예병사 10만명과 전차 1000승을 주었다. 초나라는 이 소식을 듣고 그날 밤으로 병사들을 끌고 되돌아갔다.

돈제우주(豚蹄盂酒) 사발, 그릇 우
동제양전(豚蹄禳田) 짚양. 밭 전. 돼지 발급 하나로 풍작을 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등이 유사한 성어로 사용됩니다.

2026 제20회 정조공파 경로화합잔치 성대하게 개최

정조공파(正朝公派: 회장 권오길) 주최 "2026년 제20회 정조공파 경로화합잔치"가 10월 2일 오전 11시 안동시 경동로 220 안동봉화축협 2층 묵향 회의실에서 족친(族親)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요즘 바쁜 농사철에도 불구하고 혜재, 영안, 석담 등 3개 문중 족친들이 많이 참석하였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 부부를 비롯하여 정조공파 역대 회장을 역임했던 권기만, 권기룡, 권오탁 등 3명의 고문과 권순택 주손, 권오익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경로화합잔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권혁홍 대종회 회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정조공파 청장년회에서 대형 화환을 보내오기도 했다.



권순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잔치에서 국민의례, 시조묘소 망배, 상읍례, 회장 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오길 파종회장은 단상위로 올라가서 족친을 향하여 큰절을 올릴 후 인사말에서 "우리 정조공파가 다른 파에 비해 운영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어서 기분이 좋지요"라고 반문한 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이니 늘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오익 대종회 사무국장은 축사에서 "정조공파는 다른 파에 비해 대학생 장학금지급, 출산장려금, 야유회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1월 19일 시조묘소 추향제가 봉행되니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권순택 주손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회장단과 종회를 이끌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실 것"을 부탁했다. 행사장에 좀 늦게 도착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저가 안동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정조공파 족친들의 덕분이며 앞으로 안동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가 끝나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 식사를 하였다. 음료수, 술, 떡, 포도 등 푸짐한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며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월 1장과 멸치 2통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2026年 11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 9.28. ~ 10.27.
총 납부자 118명 단체 2곳

(이름순)

총 4,100,000원 단위:원

권 규(경북 봉화) 30,000	권봉헌(경북 포항) 30,000	권영삼(경북 봉화) 30,000	권오주(경북 안동) 30,000	권춘탁(경북 영주) 30,000
권건춘(서울 강남) 30,000	권봉호(대구 북구) 30,000	권영식(대구 서구) 30,000	권오주(서울 강남) 30,000	권취웅(경북 안동) 30,000
권경상(전북 군산) 30,000	권상근(대구 서구) 30,000	권영억(경북 안동) 30,000	권오준(경기 용인) 30,000	권칠수(대구 동구) 30,000
권경오 30,000	권상현(광주 서구) 30,000	권영오(경북 안동) 30,000	권오한(제주 제주) 30,000	권태갑(경북 문경) 30,000
권경희(서울 송파) 30,000	권성갑(전남 순천) 30,000	권영완(서울 강남) 30,000	권오호(경북 안동) 30,000	권태복(서울 금천) 30,000
권구현(경남 합천) 30,000	권성달(경기 광주) 30,000	권영재(경북 포항) 30,000	권오휴(강원 강릉) 30,000	권택하(서울 동대문) 30,000
권구훈(경북 경주) 30,000	권세원(대구 수성) 30,000	권영조(경북 봉화) 30,000	권오흥(경기 군포) 30,000	권혁구(서울 서초) 30,000
권국노(전북 익산) 30,000	권수기(대구 달서) 30,000	권영준(인천 계양) 30,000	권용호(경북 포항) 30,000	권혁기(경북 경주) 30,000
권규홍(충북 보은) 30,000	권수동(경북 예천) 30,000	권영철(서울 송파) 30,000	권우석(경기 평택) 30,000	권혁길(경기 김포) 30,000
권기덕(대구 수성) 30,000	권수영(충북 청주) 30,000	권영탁(경북 안동) 30,000	권윤대(경북 안동) 30,000	권혁문(서울 용산) 30,000
권기도(경북 구미) 30,000	권수웅(경남 진주) 30,000	권영표(경북 영주) 30,000	권윤동(강원 강릉) 30,000	권혁배(경기 남양주) 30,000
권기설(경북 안동) 30,000	권수일(경북 안동) 30,000	권영호(경기 의정부) 30,000	권은준(전북 남원) 30,000	권혁성(충남 청양) 30,000
권기억(경북 안동) 30,000	권순걸(경북 영주) 30,000	권영호(경북 상주) 30,000	권이원(경남 합천) 30,000	권혁수(경기 성남) 30,000
권기정(경북 안동) 30,000	권순창(경북 안동) 30,000	권오길(경주 용강동) 30,000	권장환(경북 안동) 30,000	권혁일(강원 강릉) 30,000
권기준(경기 의정부) 30,000	권영담(대구 수성) 30,000	권오길(서울 노원) 30,000	권재영(서울 영등포) 30,000	권혁일(강원 원주) 30,000
권기태(서울 노원) 30,000	권영대(경북 영주) 30,000	권오담(경기 의정부) 30,000	권재종(서울 관악) 30,000	권혁준(대구 동구) 30,000
권길웅(경북 상주) 30,000	권영도(경남 창원) 30,000	권오룡(경북 구미) 30,000	권재태(경남 진주) 30,000	권혁태(경북 영주) 30,000
권길조(서울 종로) 30,000	권영돌(경북 안동) 30,000	권오석(경북 봉화) 30,000	권정홍(경북 안동) 30,000	권효택(경기 양주) 30,000
권대균(경북 예천) 30,000	권영두(경남 의령) 30,000	권오수(경기 광주) 30,000	권종구(대구 북구) 30,000	권후원(충북 청주) 30,000
권동식(경기 남양주) 30,000	권영록(대구 남구) 30,000	권오수(서울 관악) 30,000	권창순(경기 양평) 30,000	권희성(충남 아산) 30,000
권두일(경북 영주) 30,000	권영록(서울 중랑) 30,000	권오식(경기 수원) 30,000	권창식(경북 포항) 30,000	권희용(경북 안동) 30,000
권병대(경기 성남) 30,000	권영민(경북 포항) 30,000	권오열(강원 강릉) 30,000	권창택(경기 김포) 30,000	권희중(경기 성남) 30,000
권병석(경남 합천) 30,000	권영배(대구 남구) 30,000	권오열(서울 광진) 30,000	권철진(경북 포항) 30,000	안동권씨 오헌공종증 500,000
권병성(서울 노원) 30,000	권영봉(경북 구미) 30,000	권오영(경북 예천) 30,000	권추업(경북 안동) 30,000	안동권씨 화천군파종중 60,000

✤연간 종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